

IYF 월드문화캠프의 마인드강연

국제청소년연합 설립자 박옥수 목사 "마음을 조절하면 인생이 행복해져"

태권도원에서 치러졌던 2018월드문화캠프가 막바지에 들어간 가운데, 세계 각국에서 모인 대학생들의 마음의 변화를 불러오고 있는 마인드강연이 주목을 받고 있다.

마인드강연은 마음의 세계에 대해 배우는 것으로 이 시대 청소년들이 절제, 도전, 교류하는 마음을 배워 좀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고 글로벌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긍정의 마인드를 갖게 한다.

월드문화캠프에서 매일 2시간가량 '마인드 강연'이 진행됐다. 주강사 국제청소년연합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세계 각국 청소년들이 마음의 세계를 배워 마음을 조절하는 법을 알면 인생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옥수 목사는 "마음의 세계는 배우면 배울수록 모든 일이 쉽고 마음을 사용하는 방법도 쉽

다. 모든 문제가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마음의 세계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동차의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가 급방 설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이 행복하려면 마음의 세계를 조절을 할 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필리핀에서 온 데니스니콜씨는 "마인드강연을 들으면서 주변의 모든 것들이 밝아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차가웠던 내 마음이 녹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 메시지가 나의 미래를 변화시키겠다는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온 아이티 도씨는 "이번 캠프에 오기로 결정한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결정이었다. 마인드강연은 저를 포함해 다른 청소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제청소년연합은 내게 한없는 힘을 주고 기쁘고 행복하게 만든다. 내 삶에 있을 수 없는 기억을 갖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호주에서 온 피오나씨는 "가족이나 개인적인 문제로 마음이 무겁고 텅 빈 느낌으로 캠프에 참석했다. 다시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캠프에 참석해 마인드강연을 들으면서 왜 내 마음이 공허하고 슬픈지 이해하게 됐고, 행복하고 만족할 수 있는 길을 발견했다"며 "마인드강연을 들으며 나는 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믿기 시작했다. 강연을 통해 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청소년연합이 주최한 2018 월드문화캠프는 세계 50개국 4100명의 대학생들과 교육부 장관·차관 및 대학 총장 등이 참석해 11박 12일간 한국에서 머무르며 마음의 힘을 기르는 다양한 활동을 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캠프는 26일 오후 7시 인천 남동체육관에서 폐막식 및 그라시아스 콘서트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우주=전문선 기자



국제청소년연합이 주최한 2018 월드문화캠프가 다양한 활동을 하며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체부 '해외 진출 활성화 협의' 간담회 열어

도종환 장관 "K팝과 기초예술... 균형 지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서울 광화문에서 '해외 진출 활성화 협의회' 참여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 문화 해외 진출을 위한 건의와 애로사항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해외문화홍보원, 세종학당재단,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번역원,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관광공사 등의 기관장이 참석했다.

도 장관은 "K팝, 드라마, 영화 등 대중문화와 기초예술 분야는 수혜의 두 바퀴와 같이 균형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청년층이 선호하는 콘텐츠 분야를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기울이는 동시에 콘텐츠 창작의 원천인 기초예술을 탄탄히 해 '지속 가능한 한류' 확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해외 진출 사업 간 중복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협업 과제를 발굴·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해외문화홍보원을 중심으로 유관 기관 기관장들로 구성된 '해외 진출 활성화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협의회는 분기별로 개최돼 한국 문화의 해외 진출을 위한 협업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4월에는 주요 협업 과제를 담은 '한국문화 글로벌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뉴스



이달의 우수게임에 선정된 '아이언 스론'

다양하고 독창적인 '이달의 우수게임'

문체부, 이달의우수게임 시상식·토크콘서트 열어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2018년 상반기 '이달의 우수게임' 시상식과 '토크 콘서트'를 27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다동 콘텐츠포럼(CKL) 기업지원센터 16층 콘퍼런스룸에서 개최한다.

'이달의 우수게임'은 다양하고 독창적인 국내 게임 창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시상식이다. 문체부는 1997년부터 콘진원과 함께 '이달의 우수게임' 총 369편을 선정해 시상했다.

상반기 '이달의 우수게임' 수상작은 총 8편이다.

1차 수상작 4편은 착한게임 부분의 '내 마음이 들리니'(비전웍스)와 '뒤죽박죽 서비스'(코리아보드게임즈), 인디게임 부분의 '월 유 메리 미'(우보편앤런), '맷을(MazM): 지킬 앤 하이드'(자라나는 씨앗) 등이다.

2차 수상작 4편은 일반게임(프런티

어) 부분의 '아이언 스론'(포플랫), 인디게임 부분의 '루타에 미니게임 월드'(블루스카이게임즈), 착한게임 부분의 '동물의 정원'(파더메이드), '에브리데이 VR'(와이즈넷) 이고, 지난해에 이어 '토크 콘서트'가 열린다.

'아이언스론'을 개발한 강재호 포플랫 대표가 '세계화를 이루기 위한 방향'을 주제로 1차 강연자로 무대에 선다.

'이달의 우수게임' 수상 업체는 문체부 장관상을 받는 동시에 '2018 대한민국 게임대상' 후보 자격도 얻게 된다. 이밖에도 게임 분야 대체복무 산업기능 요원 신청 시 가산점(100점 만점에 가산점 10점) 혜택, 콘진원이 주최하는 게임전시회와 투자 유치 설명회 참가 지원, 선정게임에 '이달의 우수게임' 인증 마크 활용, 각종 게임 관련 매체를 통한 선정작 홍보 추진 등 다양한 홍보 기회 등을 얻는다.

/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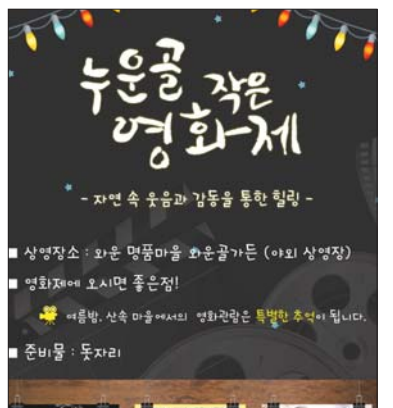
지리산국립공원, 누운골 작은 영화제 열어

지리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소장 조점현)는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에서 탐방객 및 지역주민에게 이색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명품마을을 홍보하기 위해 '누운골 작은 영화제' (이하 영화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화제는 자연 속 웃음과 감동을 통한 힐링이라는 주제로 와운마을 내 야외 상영장에서 무료 상영되며, 28일 오후 8~10시 럭키, 8월 4일 오후 8~10시 아이 캔 스피크, 8월 11일 오후 8~10시 썬니가 상영된다.

강호남 자원보전과장은 "여름밤 산 속 마을에서의 영화 관람은 특별한 추억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고품격 탐방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ivs.or.kr *전자우편 : jivs@hanmail.net